

시력교정, 각막 두께·고도근시 여부 등 자신의 특성에 맞게

건강 바로 알기 스마일 수술

김재봉 광주 신세계안과 원장

수능을 마친 김희선(19)양은 10년간 써 온 안경을 벗는 게 목표다. 시력도 나쁘고 수술이 무서워 검사받는 것도 두렵지만 이미 스마일 수술을 받은 친구들의 추천으로 안과에 방문할 예정이다.

김양은 “대학에 입학한 후엔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예정이지만 불편하고 건조증도 심해질 거 같아 꺼리린다”며 “스마일수술은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없다고 하니 무섭더라도 검사받고 수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스마일수술을 도입한 후 최근까지 2만 5000례 이상을 집도한 광주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으로부터 스마일 수술의 특징에 대해 들어보자.

◇ 내 눈에 맞는 시력교정술은 =시력교정술은 각막의 두께와 근시의 정도에 따라 시술법이 달라진다. 각막이 두꺼운 경우는 라식수술을, 각막이 얇으면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식과 라섹수술이 모두 가능하면 직업과 수술 후 휴식기간

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근시 정도가 약할 때는 일반 라식·라섹이 좋다.

또한 라식과 라섹수술이 모두 어려운 고도근시일 때는 스마일 수술이나 렌즈삽입술이 대안이며 건조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필요할 때는 스마일 수술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라식수술은 각막 절편을 생성한 후,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 교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각막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막에 분포하는 신경이 같이 절단돼 손상된다. 신경이 손상되면 각막의 민감도가 떨어져 눈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안구건조증, 빛 번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라섹은 각막상피를 제거 후 각막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므로 각막표면에 상당한 자극을 준다. 각막표면은 외부자극에 대한 세포 반응이 활발해 라섹수술시 레이저의 자극은 각막에 심한 조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각막이 부열게 돼 시야가 흐려지는 각막혼탁이 생길 수 있다.

렌즈삽입술의 경우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눈 안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하기 힘든 -9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너무 얇은 경우에 렌즈삽입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하지만 다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 라식·라섹 장점만 스마일 =스마일 수

스마일, 라식·라섹 시술 단점 보완 ... 부작용도 최소화
초고도근시나 각막 얇은 사람도 시력 교정 받을 수 있어

술은 이 모든 수술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수술 방법이다. 스마일 수술의 대표적인 장점은 빠른 회복력이다. 기존 라식은 약 20mm이상 각막을 절개해 시력을 교정하는 반면, 스마일 수술은 90%감소한 약 1~2mm의 최소 절개만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또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저로 각막을 1~2mm만 절개해 각막 실질부만 제거함으로써 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각막 절개 부위가 적어 안구건조증이 나뉘 번짐 등 부작용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수술 다음 날부터 근거리 작업은 물론 가벼운 운동과 화장도 가능하다. 또한 각막부상을 만들지 않아 라섹과 같이 외부 충격에 강하며, 신경 손상이 거의 없어 수술 후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 발생률도 낮다.

광주 신세계안과 김재봉 원장은 “스마일 수술은 직장이나 군인 등 빠른 복귀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좋다”며 “부작용도 현저히 줄고 통증도 거의 없는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고가의 렌즈삽입술 대신 선택 가능=

시력이 매우 좋지 않거나 각막이 얇아 라식·라섹이 아닌 렌즈삽입술만 가능했던 초고도근시 환자들에게 스마일 수술은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고도근시인 12.5디옵터(근시·난시 합도수)까지 시력 교정이 가능해 고가의 렌즈삽입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근시가 심할 경우 깎아야 하는 각막의 양이 많아 각막이 눈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각막이 돌출되는 각막확장증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스마일 수술은 각막 손상 없이 각막 실질을 추출하는 원리를 사용해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얇은 사람도 시력을 교정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초고도 근시를 갖고 있어 라식·라섹을 할 수 없고, 렌즈삽입술만 가능했던 환자들이 매우 저렴하게 시력 회복이 가능해졌다. 특히 라식이나 라섹보다 안전할뿐더러 렌즈삽입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근시부터 초고도 근시까지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신세계안과, 전국 최초 리딩스마일센터 선정 =광주 신세계안과는 스마일 수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로 독일 칼자이스에서 ‘LEADING SMILE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이 지난 16일 수능이 끝난 뒤, 시력교정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수능생을 진찰하고 있다. <신세계안과 제공>

CENTER’로 선정됐다. 또 신세계안과는 지난 2016년 칼자이스사에서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 상을 받았으며, 스마일 수술 장비인 ‘VISUMAX’를 추가 도입해 호남지역 안과 중 유일하게 수술 장비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일 수술은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 수술이다. 부작용을 줄이려는 수많은 노력, 성능 좋은 장비 등 모든 것이 준비돼 있는 안과에서 시력교정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정성어린 치료에 감동” ... 환자들이 잇단 기부

김승구씨 부부 1천만원 전달 치료받은 의사들도 후원 참여

대학병원에 정성어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진)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정성어린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사와 점진적 발전을 위해 써달라는 마음을 담아 잇달아 기부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김승구(64)씨 부부는 최근 1000만 원을 병원 발전기금으로 후원했다. <사진> 전직 공무원인 김씨는 올해 담낭염으로 입원,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받았다. 김씨는 치료·입원 과정에서 주치의인 허영희 교수(간담췌외과)의 친절한 보살핌에 감명받아, 최근 아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안연구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지난 7월에는 뇌종양 치료를 받은 광주의 모병원 의사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병원장인 정진 교수(신경외과)로부터 수술받고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이 의사는 자



신을 돌봐준 의료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후원대열에 동참했다.

앞서 3월에는 광주의 척추질환 전문병원인 ‘새우리병원’ 김인환 원장이 1억원의 후원금 증서를 전달했다. 김원장은 지난해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해오다, 올해 초 두 달이 간을 기증해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김원장은 “장기이식 등의 의료시스템 강화와 인재육성, 연구와 진료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는 기부취지를 밝혔다.

정진 원장은 “치료받은 이들의 기부가

이어져 더욱 뜻깊고, 큰 보람을 느낀다.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며 “입원 환자들이 경험한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으뜸으로 뽑힌 글로벌 병원으로서, 암치유와 암정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에 1천만원을 기부한 김승구씨 부부(오른쪽에서 2,3번째)가 정진 원장(왼쪽에서 4번째) 등 병원 임원진과 함께 ‘기부 현황판’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치과병원 이전 11주년 ... “환자중심 신뢰받는 병원”

전남대치과병원(병원장 박홍주)이 지난 2008년 현재의 용봉동으로의 이전 11주년을 맞아, 병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치의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지난 15일 병원 5층 평강홀에서 이삼용 전남대학교병원장과 박홍주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홍주 병원장은 “내부적 체질개선을 통한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주력하고, 교육·연구·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치의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삼용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지난 10년이 지역민에게 믿음과 감동 전하는 병원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이 여세를 몰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병원의 위상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협 광주전남지부, 21일 무료 건강강좌

‘치주질환이 각종 질환 부른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원장 김동규)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치주질환이 각종 질환을 부른다’를 주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한국건강관리협회 위지영 치과전문이강의하며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법, 구강 건강에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매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강좌를 실시하며,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